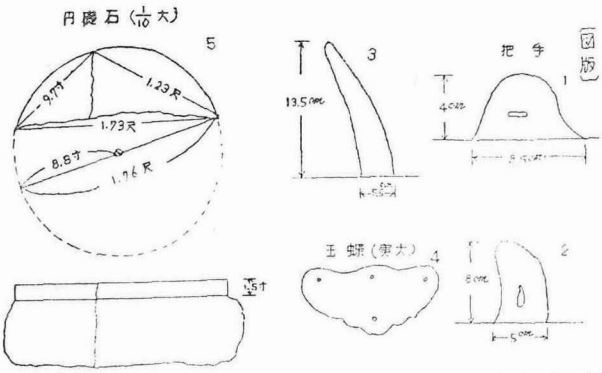
扶餘 扶蘇山 出土의 百濟遺物

洪 思 俊

지난 九月初旬 扶蘇山南麓(대째골泗沘樓下)에 宮女祠宇를 建築하기 爲한 整理作業場 地下 一·二m에서 意外로 百濟時代의 遺物이 出土되었다。 그 遺物들은 全部가 完形이 없으나 百濟 當時에도 建物이 있었던 것을 알겠으며 家庭用器具이다。

(圖版)



(1) 把手 三種(圖版1、2、3、)
(2) 鐵釜破片
(3) 인두? 鐵製 끝이 三角 柄이 四角柄
(4) 鐵火爐片 一
(5) 鐵釘 一括 散在하였음
(6) 圓柱礎破片(圖版5)
(7) 凝灰石 四個 一五cm厚 原石으로 花崗石
(8) 土器蓋片 數種 重圈文小器片 / 祭器陶製片 / 土製瓶項
(9) 甑器底片 一
(10) 博片 一
(11) 大甕 一 直立埋沒되었으나 破損이 極甚하였고 陶片이 散逸
(12) 百濟瓦片 多數 蓮花文막새 片一
(13) 玉蝶(圖版4)
(14) 鐵鍬 一個 完全

以上에서 (6) 圓柱礎石殘片을 復原한 바 直徑이 一·七六尺 東魏尺으로 一·五尺임을 알았으며 또는 (13) 玉蝶은 白玉 一㎜薄板에 蝶形을 造出 四處에 細孔이 있어 女子用 製飾具에 頭飾用으로 쓰였었던 것을 알겠다。

歐州通信(完)

申 榮 勳

博物館倉庫에 保管되어 있는 醫師칼·박博士의 코렉손(註·메디칼·쎈터에서 醫師로 勤務하다가 丁抹에 最近 歸國한 사람으로 歸國時 韓國의 陶磁·木工藝品 等 多數를 搬入 同博物館에 寄贈하였으나 未整理로 지금까지 陳列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마타·보이어 博士(Dr. Matha Boyer)와 둘이서 調査하기로 하고 하루 날을 받아 착수하였다。 스스로의 속셈으로는 좋은 작품이 있으면 골라서 書齋의 備置品으로 使用하고 여유가 있으면 지금의 진열품을 全部 交替하는데 利用하였으면 하는 希望을 가졌었다。 韓國關係의 資料는 特別展示室 바로 뒤편 倉庫에 保管되어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문이 달린 欌안에는 土器와 瓦片을 넣어 두었고 木工藝品은 그 바깥쪽에 비니루커버를 씌운채로 積載하여 두었다。 먼저 土陶品부터 보기로 하였다。 新羅土器形의 그릇 約 百餘點·莫斯瓦 二十餘點·高麗磁器 五十餘點 李朝磁器가 百餘點·其他 三〇餘點 合計 約三百點인데 新羅土器形 그릇과 莫斯瓦는 어떻게 그렇게 모았으랴싶게 철저히 模造品만 蒐集하였고 高麗磁器도 門外漢의 眼目으로 보아서도 蒐集에 失敗하였구나 하는 程度의 作品들이 大部分이었다。 陶磁專門家의 識見을 빌지 않고는 도무지 模造品 與否를 判斷할 수 없는 몇몇개의 鉢·盌·甁類가 있고 조금은 깨어져 나가거나 하였지만 그런대로 멋을 지니고 있는 象嵌類의 作品도 한 구석에 있었다。 이 중에서 象嵌梅花文주전자 一點과 陰刻牡丹文盌 二點을 韓國室開館時 玄關 特別 陳列欌에 展示하였다。 高麗磁器는 約二割程度만이 오리지널 한 것으로 보였다。 李朝磁器는 總數의 八割以上이 오리지널한 것으로 判斷되는데 대부분 砂鉢類이고 소수의 甁 及 壺類가 混在하고 있다。 砂鉢類는 대부분 靑華白磁의 祭器用器이고 甁도 祭酒甁이 中心이다。 壺類는 卵黃·灰白色系의 白磁器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참으로 멋지구나 하는 嘆聲이 나올만한 것이 三點 있었다。 이 三點과 靑華白磁壺 二點을 골라 書

齋와 陳列櫃·玄關特別陳列櫃에 各各 展示하였다。

木工藝品은 全部가 李朝時代의 作品으로 장농·文匣·櫃·硯床 等이다。 눈이 번쩍 뜨일 逸品을 찾지 못한 것은 亦是 門外漢의 鈍한 眼目탓인 듯 싶다。

一〇月 一二日(水)下午 二時에 韓國室 書齋의 竣工式을 擧行하였다。 이 式을 위하여는 KOREA I DANMARK라고 表題한 案內書(黑色印刷·演慶堂全景寫眞 一枚 가로 二一 cm×세로 三〇 cm 四頁 아트紙 丁抹語版)와 定規의 포스터 一種과 韓國古建築寫眞 六枚(黑白色 가로 九〇 cm×세로 一三〇 cm 規格)를 壁掛用으로 製作하고 東洋書家 李應魯氏의 揮毫를 特別展示하였다。

竣工된 書齋는 演慶堂의 아랫목쪽 二間을 模倣한 建坪 六坪의 온돌 二間과 一間의 앞 퇴 쪽마루가 있는 建物로 쪽마루끝에 난간을 첨부하였다。

이 建物의 設計는 筆者가 한 것이나 崔淳雨 先生任의 助言과 配慮가 크게 作用하였다。 建物의 治木과 豫備組立은 大木 李光奎氏가 맡아 製作하였고 室內의 家具 等 調度品의 選定은 亦是 崔淳雨先生任께서 全擔하시었다。 室內裝飾品은 建物樣式에 맞추어 李朝時代의 作品에서 코렉트하였다。 建物製作의 用尺은 營造尺을 置位로 하였으나 全面積 總高 等은 博物館 既存建物에 制約을 받았다。

書齋의 資材는 一切 韓國政府(公報部 主管)가 寄贈한 것이므로 蓋瓦에서 鮮釘花崗岩步石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包裝·船積하여 보내온 것이나 其外의 資材, 고벡이用 塼材·石灰·벽중깃·塗裝·照明 等은 丁抹의 것을 使用하였다。

이 建物의 設置를 위하여서는 駐瑞典大使館의 朴民秀 書記官과 이 博物館의 마타·보이어 博士가 企劃時부터 盡力하였고 國內에서는 前記 崔淳雨 先生任과 公報部 海外課實務者를 그리고 同人 黃壽永·秦弘燮 兩位와 朴星三氏가 애쓰셨으며 現地에서는 僑胞 金昌鎬氏 夫婦와 입·봐이스(Ib Weise)氏가 勞苦를 아끼지 않았다。 其外 이 博物館 民俗部諸位의 協助와 激勵가 대단하였다。

竣工式에는 丁抹 考古學者, 建築史學家·博物館關係者 등과 韓國側을 代表한 駐瑞典 劉載興大使·朴民秀 書記官·駐佛公報館 金炫斗 書記官·金昌鎬氏 夫妻를 비롯한 僑胞여러분과 李應魯氏 夫妻·筆者가 參席하였다。 激務에 시달려 主務者 마타·보이어博士가 臥病不參한 것은 애석한 일이었다。

同博物館民俗部長 헤지·라아슨博士의 人事로 시작된 式은 筆者가 韓服입고 書齋보료에 定坐, 선비의 거동을 흉내내는 데몬스트레이숀으로 막을 나리고 이어 別室에 마련한 리셉숀이 휘나레를 장식하였다。 밤에는 韓國側參席者들을 위한 博物館側主宰의 디너파티가 있었다。

이튿날 코펜하겐의 新聞들은 어제의 竣工式記事를 보도하였는데 筆者의 韓服차림의 선비행세 모습을 찍은 사진을 중심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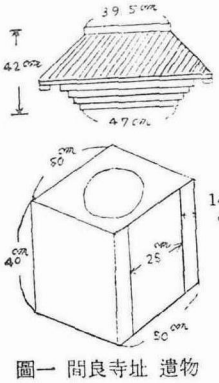
一〇月 二〇日 竣工式에 따르는 뒤치닥거리를 끝내고 그 간 정이 든 여러사람과 작별, 귀국의 길에 올랐다。

考古美術 뉴—스

◎禮山遺蹟巡禮 (洪思俊)

禮山 修德寺가 百濟人 釋惠現의 初住라는 三國遺事의 記錄을 基準해서 지난 八月 二十七、八日 該地에 到着하였다。 到着時間이 午前 十一時 禮山中學校 柳校長에게서 同郡新禮院里에 問良寺址(道高山 南西麓 前方에 德峯山)가 있는데 石塔一基를 「溫陽 서울여사」에서 昨年봄에 二萬원에 運搬하였다는 말을 듣고 우선 이곳을 찾기로 하고(一行六名) 二十里길을 걸어 現地를 가보니 高麗代로 推測되는 寺址에는 아직도 幢竿支柱一雙(一柱破) 圓礎石一個가 박혀 있고 臙石坐佛(無頭)도 있었으며 浮屠址로 推定되는 上段地에는 舍利塔의 屋蓋石(圖一) 一個 塔基壇石 一個 塔身石 一個(圖二)가 山田에 굴러 있었다。

다음날 本來 目的地인 修德寺를 早朝出發 德崇山을 北에서 넘어서 定慧寺 見性庵을 經由 修德寺에 이르러 總務僧에게 舊寺址이야기를 꺼내 말하니 當時 南五〇〇 m 地點에 寺名不知의 遺物이 있다는 데서 가보니 寺址는 이미 없어져 山이 되고 다만 圖二와 같은 遺物이 있을 뿐이다。 石塔材는 石塔址에서 西側구렁에 三枚가 있을 뿐이었다。 禮山邑에 六時頃 到着 禮山邑에서 北五里 香泉寺를 찾았더니 鍾閣이 新築되었는데 懸鍾下音響擴大用 질그릇독이 없어진 것이 옛모습 하나가 또 없어져서 섭섭하였다。



圖一 遺物 址寺良間

◎公州에서 百濟石室墳 二基의 調査

公州郡 長岐面 新官里 柿木洞(國立公州病院東方 約三〇〇 m)低丘陵 南端에 上下二基의 合掌式 石室古墳이 今